

농어촌公 함안지사, 설 명절 맞아 농지은행사업 홍보

[강호석]

고향의 농지를 지키고, 농업의 미래를 잇는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지사장 박찬수)는 지난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대표 전통 시장인 일원에서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 맞이 농지은행사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농지 임대·매도, 경영이양직불, 농지연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시장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과 안내물을 배부하며 ▲청년·후계농의 영농 정착을 돕는 공공임대·매입사업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정을 돕는 농지이양·은퇴 직불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시장을 방문한 농업인들에게 농지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1:1 상담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찬수 지사장은 "설 명절은 가족과 고향, 그리고 농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기"라며 "농지은행은 고령농의 노후 안정과 청년농의 영농 기반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생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중심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은 고령농·은퇴농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해 청년농·전업농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함안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 농업인단체 간담회, 마을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농지은행사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호석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호석기자